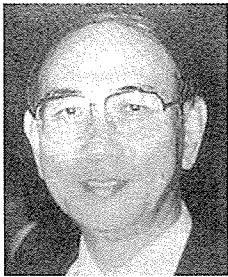


조직이고 그 배경이 검게 보여서 검은자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을 통하여 광선이 눈안으로 굴절하여 들어가 망막에 도달하고 이것이 시신경을 통하여 뇌에 전달되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창문과

수술방법은 병변의 정도 또는 범위 따라 다르며 각막 전체를 이식하거나 부분적으로 이식하며 또는 전층(全層) 혹은 표층(表層)만을 이식하게 된다.

각막이식 수술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도 같은 각막에 여러 원인으로 고장이 생기면 그 부분에 백색 혼탁이 생기고 광선이 들어가지 못하여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때까지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보던 사람이 그 유리창이 우유빛 유리창으로 변해서 밖이 잘 안보일때 그 우유빛 유리창을 떼내고 대신 다른 사람의 맑은 각막으로 갈아끼워 주는 것이 각막이식 수술이다.

각막이식의 재료

이식에 사용될 각막조직은, 기증 희망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 즉시 안은행에 연락하여 전문의사가 바로 찾아가서 구하게 되는 것이다. 각막이식에 사용될 안구는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적출하여 습실(濕室) 병 속에 넣어서 섭씨 4도의 냉장고에 보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존된 안구는 48시간 이내에 전층 각막이식 수술에 사용해야 한다. 또 특수 용액에 보존하면 1주일 정도 보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층 각막이식에 사용되는 것은 48시간이 지나도 큰 무리는 없으나 모든 각막이식 수술이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선한 각막이식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기증자가 사망후 각막을 얻을 때까지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우 리나라에는 현재 약 15만명의 실명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10%는 각막이식 수술에 의해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명상태에 광명을 보게 하려면 신선한 각막이 공급되어야 하겠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가진 안과의사도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실명자 10% 시력회복 가능

각막은 눈의 검은자와 동자의 앞에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시계 유리와도 같은 투명하고 얇은 특수한

시신경·망막 이상엔 효과없어

각막이 혼탁되는 원인은 유전적으로 양안에 변성이 생겨서도 오고 각막에 세균이나 헤르페스성 바이러스나 진균의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나며 그밖에 외상이나 화학물질이 들어가서도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혼탁된 각막의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투명한 각막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각막이식이라 한다. 그러나 각막 이외의 부분 가령 시신경 또는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각막이식 수술을 해도 시력회복은 불가능하다.

현재 수술성공률은 90% 이상

각막이식 수술의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이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막질환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막 이외의 눈의 기능은 정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실명자에게 이 수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각막장애에 있어서도 적합한 환자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엄격히 선택된 증례에 있어서는 수술성공률은 90% 이상이며 장래에는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㉞